

Issue Comment

- ✓ 철강사와 조선사가 후판 가격 인상에 합의함
- ✓ VLCC의 해당 영업이익은 9~18 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 10 만원 인상시 30 억원 추가 투입되어 적자 직행 가능

후판값 인상 확정으로 조선업종 2018년 적자 전환 가능

지난 10월 11일 SK 증권 리서치센터는 'SK Cyclical Bulletin Release 3: 후판은 오르되, 선가는 쉽지 않다'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철강사와 조선사의 후판 가격 협상이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사는 신조선가를 올리자니 중국 조선소들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고 신조선가를 올리지 않자니 마진 스퀴즈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29일 양측이 **후판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사가 신조선가와 후판 가격이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신조선가에 얼마나 반영할 지에 따라 내년도 적자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선종별로 영업이익률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VLCC 기준 후판이 약 3만톤 가량 투입됨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만원 오를 때마다 추가 비용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후판이 열연이나 강판 대비 약 10만원/톤 가량 저렴하므로 후판 가격을 10만원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VLCC 한 척당 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즉, 신조선가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로 직행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격 인상 폭에 대한 합의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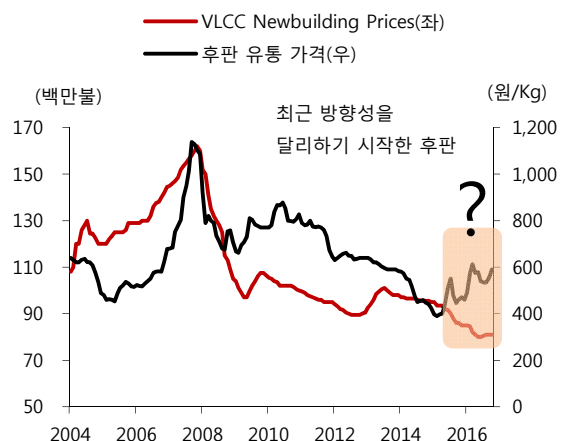
후판값 인상이 확정되었으나 인상폭 협상이 남아있음

최근 신조선가는 후판 가격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음

'후판값' 이어 이번엔 '인상폭'...철강,조선 2R

29일 조선 철강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조선 철강사들이 올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서 단가를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중략)...**지금은 인상가격을 정하기 위한 실무교섭이 진행 중...**(중략)...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적당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으로 VLCC 한 척을 건조해 조선사에 남는 돈을 단순계산하면 9~18억원 정도다

2017. 10. 29 서울경제 발췌



자료 : 서울경제, SK 증권

자료 : Clarksons Research, Steel Daily,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